

얼마전 어느 일간지에 아이 엄마들이 사족을 못 쓴다는 그 IQ라는 것에 관해서 기고한 적이 있다. 의외로 많았던 반응, 심지어 어느 국민학교에서는 자모회 이름으로 강연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.

아마 IQ가 별 것 아니라는 내 주장을 재확인하려는 것이었는지 모른다. 그래서 나는 IQ와 관련이 있다는 뇌 무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 것이다.

뇌 무게는 평균잡아 남자가 1,350그램에서 4,002그램, 여자 것은 1,200그램에서 1,250그램(숙녀 여러분 미안합니다).

찰스 1세를 시해하고 공화제를 설립한 크롬웰의 뇌 무게는 자그마치 2,234그램이었다고 한다. 꼬마였던 나폴레옹의 뇌 무게는 아마 크롬웰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다. 그래서 그는 그 험난한 알프스를 넘었지만 망했다.

그의 뇌 무게가 꽤나 무거웠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의사가 그의 시체를 해부했는지 모르겠다.

문호, 투르게네프의 뇌는 2,000그램이었다고 한다. 그러나 아나톨 프랑스의 그것은 1,000그램이었다.

그들 뇌 무게를 어떻게 재었을 것인가. 나는 의사이기에 관비(官費) 입원한 환자들에게 죽은 후 그 시체를 연구용으로 「헌납」할 것을 요구한다. 그가 죽었을 때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. 두 번 죽이지 않겠다는 가족들의 간청인 것이다. 때문에 우리 의학의 발전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.

뇌 무게가 많아질 수록 똑똑하다

고 생각한다면 4킬로가 넘는 코키리나, 9킬로가 넘는 고래는 지능면에서 훨씬 더 사람을 능가했을 것이다.

사람 뇌의 무게는 체중의 약 40분의 1. 흰쥐나 긴 팔 원숭이는 28분의 1, 참새나 두더지도 사람 것 보다 많다.

이들 동물이 사람 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가?

신경세포의 수는 0.1입방 밀리미터 속에, 사람은 10.5개, 생쥐는 42.5개, 모르모트는 52.5개!

그런데, 사람은 생쥐나 모르모트 보다 더 영리하지 않은가?

50여년전, 사람의 뇌 세포 수를 140억개라고 추산한 의학자가 있었다.

이젠 고전적 숫자가 되었지만 지금의 의사들은 아무 저항없이 이 숫자를 받아들이고 있다. 즉 제아무리 경제공황이 오더라도 뇌 세포에는 「인플레」가 없다는 이야기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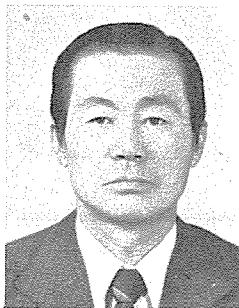
140억개의 뇌 세포가 300억 개로 늘었다 해서—다시 말해서 뇌 무게가 늘었다 해서—사람은 과연 이 아름다운 지구를 탈출, 우주주택에 이사갈 수 있을 것인가?

들 개(野犬)의 뇌 무게가 집 개의 그것보다 무겁고, 또 들 고양이 뇌가 집 고양이의 그것보다 더 무겁다는 사실을 의학자들은 밝혀냈다.

결국, 뇌의 무게가 지능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다.

그래서 나는 제 힘만으로 굳건히, 씩씩하게 살아가는 들 짐승들을 본 따고 싶은 것이다.

腦의 무게



李章圭
(原子力病院長)